

2023. 2.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김제시의회

#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벼 수확기 황금 들녘을 보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하나 멈출 줄 모르는 쌀값 하락,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급등, 농자재값 인상 등 농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다.

계속되는 쌀가격 폭락으로 올해 신곡(新穀) 파종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쌀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서 ‘신동진’을 제외하고 보급종 중단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농가 소득 감소 및 식량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단계적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 김제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한 품종인 ‘신동진’은 일반 쌀에 비해 밥알이 1.3배 크고 쓰러짐이 약해, 당시 거름량을 5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밥맛 좋고 품질이 좋아 차별화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된 품종이다.

우리나라 밥쌀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고 벼 대신 쌀로 유통되면서 신동진 품종은 전국 최하위 쌀값 수준에서 탈피하여 중상위 시장까지 진입,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유명세로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되었다. 김제시가 우리나라 쌀 경쟁력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호남 지역 RPC 회생에도 직접 관여한 셈이다.

이러한 김제시의 노력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재고량의 적정 유지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매입품종 제외 및 보급종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동진 벼 품종의 일방적인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또한 쌀 적정 생산량을 제한하지 말고 소비자 기호, 농가 소득, 품종 기여도, 농민의 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 마련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품종 기여도, 지역의 특수성, 농민의 헌신 등을 비추어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풀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정부에 역제안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제 대표브랜드인 ‘지평선 쌀’은 신동진으로 수확한 쌀이며, 신동진 벼 품종을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을 할 경우, 김제시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최소한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과 농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식량주권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2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